



2009년 호남선에 투입될 'KTX-II' 16일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서 개막된 '2007 부산국제철도산업전'에 순수 국내기술로 설계 제작한 'KTX-II'의 실물 모형이 최초로 공개됐다. 2009년 호남선과 전라선에 투입될 예정인 'KTX-II'는 앞머리 부분을 산처럼 모양으로 형상화했으며, 모든 좌석을 회전시킬 수 있어 승객들이 역방향으로 앉게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부산일보=정종희기자

남북열차 반세기만에 시험운행

대륙횡단...꿈 이뤄질까

남북 연결 첫 관문 통과
北 철도 현대화 등 과제

반세기 넘게 끊겼던 남북 간 철로가 연결돼 시험운행에 들어가고 정부에서 대륙횡단철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남북 간 철도 연결을 넘어 대륙횡단까지 이어지는 꿈이 실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용섭 장관은 1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도산아카데미 조찬 강연에서 "완전개통을 위한 사전 단계로 17일 남북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한다"면서 "이는 남북철도 정상 운영을 위한 기술적 토대가 마련됐는데 의미가 있으며 향후 남북 철도 정식 개통과 더불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TSR와 중국횡단철도(TCR)가 시설이 잘 돼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노선"이라면서 "하지만 TCR은 중국 자체도 포화상태라서 물동량을 그쪽으로 통과시키기 힘들어 지금로서는 TSR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남북 간 3단계 개통 추진=시험운행은 일회성 행사지만 개통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남북 철도 개통을 위해 3단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1단계는 개성공단 관련 물자 수송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통근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2단계는 개성관광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3단계는 남북 간 정기열차를 운행하는 것이다.

◀TSR-TCR 연결은 장기과제=남북 철도의 정기 운행과 함께 한반도종단철도(TKR)이 TSR, TCR과 연결되면서 그동안 단절된 대륙

으로 향하는 철길을 열어나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하지만 남북 열차의 정기운행과 마찬가지로 북한 철도 현대화 문제가 사전에 전제되지 않고서는 '철의 실크로드'는 고사하고 경제성과 안전성을 기대하기 힘든 상태다.

TSR의 노선은 부산-원산-두만강-학산-이르쿠츠크-모스크바에 이르는 1만1천601km이지만 한반도 내에서 동해선·경의선·경원선 중에서 어느 라인이 주축이 될지 정해지지 않았다. 북측은 TSR-동해선 연계에 관심이 있지만 동해선의 경우 우리 측 제진과 강릉 사이 118



km 구간이 끊어져 있는 게 문제다. 이 구간을 복원하는데 1조5천억원이나 들 전망이다.

경의선의 경우 TSR보다는 신의주를 통해 바로 TCR로 연결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지 알 수 없고 비용 부담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있다. 어림잡아 10조원 가까이 들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따라서 남북 간 철도가 현대화 작업을 마칠 때까지 우선 부산에서 북한의 나진항 등을 통해 1차 해상운송을 한 뒤 2차로 TSR에 연결하는 대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합뉴스

문산역 출발 경의선 오후 1시 개성역 도착

■미리 타 본 남북열차

반세기 만에 휴전선을 넘나드는 열차 시험운행은 경의선의 경우 문산역-임진강역-도라산역-관문역-손하역-개성역 구간(27.3km)에 남측 열차가, 동해선은 금강산역-삼일포역-감호역-제진역 구간(25.5km)에 북측 열차가 투입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상대 측 지역에 들어갔다 돌아오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열차는 디젤 기관차 1량에 객차 4량, 발전차 1량 등 총 6량으로 이뤄지며 각 열차에는 남측 인원 100명, 북측 인원 50명 등 150명씩이 타게 돼 모두 300명이 시험운행을 체험한다.

행사 당일인 17일 오전 10시45분 경의선과 동해선 출발역에서 각각 기념행사가 열린다. 경의선 열차에 탑승하는 북측 참석자와 동해선 열차에 타는 남측 참석자는 이날 오전 일찍 상대

측 지역으로 넘어가 기념행사부터 함께한다.

오전 11시30분 남측 열차가 문산역을 출발해 북으로 향하고 같은 시각 북측 금강산역에서는 북측 열차가 남으로 출발하며 역사적인 열차 시험운행은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문산역을 떠난 남측 열차는 2분 뒤 도라산역에 도착하고 탑승객들은 10분 정도 간단한 통행 및 세관 검사를 거쳐 내서로 가게 된다.

열차는 남방한계선을 지나 낮 12시20분께 MDL을 넘어 북쪽 땅에 들어서고 관문역, 손하역을 차례로 지나 오후 1시께 개성시 인민위원회 장을 비롯한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개성역에 도착한다.

금강산역을 떠난 북측 열차도 삼일포역을 거쳐 감호역에서 역시 통행·세관 검사를 받은 뒤 경의선 열차와 비슷한 시각에 MDL을 넘어 남측으로 진입하고 낮 12시30분께 제진역에 닿는다. /연합뉴스

‘有錢입선 無錢낙선’ 터질것 터졌다

“비리 북마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도 심사와 관련해 급금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25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 비리를 접한 지역의 한 중견 미술인은 이 같은 말로 미술계에 만연한 부패 구조를 압축했다. 16일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미술협회 고위 간부와 대외 심사위원들이 돈을 받고 미리 수상작을 선정해 왔다는 미술계의 공공연한 비밀이 사실로 입증됐다.

◀미술대전은 ‘짜고치는 고스톱’=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한국미술협회 전 이사장 하모(54·현 전남예총 회장)씨는 출판 작가의 응모작을 뜻하는 ‘패’를 돌리는 수법으로 자신의 후배나 제자들을 특·입선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제25회 미술대전 문인화 부문의 경우 2천여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나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입선작 391점과 2차 심사에서 선정된 특선작 113점은 대부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미리 결정된 것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만연한 학연·금품비리=부정행위로 수상의 ‘영광(?)’을 누린 작가들은 대다수 협회 고위 간부나 심사위원들의 제자 또는 후배들로 자연과 학연은 물론 뇌물까지 동원해 미술대전에서 입선할 수 있었다. ‘유전입선 무전낙선(有錢入選 無錢落選)’이라는 속설이 입증된 것이다.

미술계에서는 “입선이 되려면 300만~500만원, 특선이 되려면 1천500

‘비리 북마전’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통령상 6,000만원 특선 2,000만원
미리 찍어놓고 심사...90% 이상 뒷거래
광주·전남 대거 연루...지역 미술계 충격

만~2천만원, 대통령상을 받으려면 상금(3천만원)을 포기하고 3천만원을 더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 정도로 뇌물 수수가 만연해 있다.

◀애 광주·전남 출신 무더기 연루됐다=하씨가 이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지역 출신 미술인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특정 지역 출신이 아니면 미협 심사위원이나 임원을 맡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였다는 게 미술인들의 전언이다.

89년 미술협회 주최 후 ‘잡음’ 더 커져

대한민국 미술대전은

대한민국 미술대전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 된 미술공모전이다. 신진작가 등 응모자로 해방 직후인 1949년 시작된 대한민국 미술전람회(국전)의 후신이다. 정부가 주도하다가 1982년 문예진흥원으로 넘겼고, 89년부터 한국미술협회가 맡고 있다.

이 때문에 미술대전 수상자 선정비리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9명 가운데 6명이 광주·전남 출신 인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문인화 부문의 경우 ‘도제식 교육’으로 끈끈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미협 이사장 선거는 비리의 원천=이같은 심사 부정 등 각종 미술계 비

리는 선출직인 미술협회 이사장이 무소불위의 막대한 권한을 휘두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미술계에서 미술협회 이사장이 누리는 권한은 독보적이다. 그래서 다들 이사장을 하려고 난리다. 그러다보니 이사장에 당선되면 30여원은 써야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당선이 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선거비용을 쏟아붓다보니 ‘본전’을 뽑기 위해 각종 금품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술협회는 전국 137개 지부, 2만4천여명의 회원들로부터 연간 2만5천원(지방) 또는 3만6천원(서울)의 회비를 걷는 데다 미술대전 운영 비용으로 매년 1억~1억2천만원의 문예진흥기금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어 자체 예산만 해도 10억원이 넘는다.

◀지역 미술계 반응=미술계에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이같은 행위가 경찰 수사결과와 사실로 밝혀지자 지역미술인들은 침묵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술계 일각에서는 자성론도 제기되고 있다. 중견 미술인 오모씨는 “내사람 챙기기가 만연한 지역 미술계의 풍토와 계파간 일리가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안타까운 사건이다”며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지역 미술계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재광 영암군 향우회 제 58회 정기총회 및 화장이·취임식

일시 : 2007년 5월 19일(토) 오후 4:00 장소 : 화순 도곡스파랜드(화순 도곡 온천단지내)



화순도곡온천의 성분

도곡온천은 수온 30°C-35°C의 유황과 나트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알칼리성 리튬온천으로 류마티즘, 만성피부염, 습진, 빈혈증, 무좀에 큰효과가 있고, 악수처럼 미시된 신장염, 이노작용, 해소천식, 부인병에 좋습니다.



우리 모든 향우님들의 건승과 행운을 축원합니다.

2007년 재광 영암군 향우회 제58회 정기총회 및 화장이·취임식을 다음과 같이 갖고자 하니 꼭 참석하시어 영원한 마음의 안식처인 고향의 향수와 정을 나누시는 영암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1 참석대상: 재광 영암군 향우, 내외귀빈, 출향 초청인사
- 2 참석하신 분 전원 기념품 증정(초청장 소지자에 한하여 사우나 무료이용권 증정)
- 3 대중교통편의
 - 스파랜드 24인승 전용버스
 - 출발지: 주월동 빅마트 앞
 - 출발시간: 1시 30분, 2시 30분, 3시 30분
 - 시내버스노선: 318번
 - 출발지: 광천터미널 시내버스 정류장
 - 출발시간: 9시 55분, 11시 55분 1시25분
- 4 문의처: 재광영암군 향우회 사무실 ☎062-225-4515

在光 靈巖郡 鄉友會

유황온천수의 그 신비함과 테마별 건강 크리닉의 생생함을 온가족이 함께 가까운 화순 도곡스파랜드에서 즐기십시오!

화순 도곡스파랜드 061-374-7600

